

성지순례로 보는 가나안의 머리 하솔 < 신학 < 기사본문

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

2011년 12월 5일



기자 회원들의 글은 <뉴스앤조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솔은 가나안 땅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성읍입니다. 특히 하솔은 고대 가나안 원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성읍으로서 종교적·정치적·군사적 면에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솔은 므깃도에서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연결되고 중동 지역의 초승달 지역을 통하여 바벨론까지도 연결되는 도로 상에 있으며, 두로에서 벳산으로 연결되어 요단 동편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솔은 아랍어로는 텔 알 쾀다흐라고 불리며 갈릴리 호수 북쪽 약 16km 지점, 흘레호수 남서쪽 약 8km 지점, 상부 요단강 서쪽 약 5km 지점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수11:10~11)서에 의하면 가나안 왕 야빈의 수도였던 이곳은 당시에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기에 가나안의 머리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하여 영도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 남부와 중부를 정복하고 이제 남은 북부 지역을 정복하고자 할 때,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의 북쪽 진격 소식을 듣고 이웃의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자 요단강 지역의 세력으로부터 지중해에 맞닿은 지역의 세력까지 모을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모아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아 보고자 메론 호숫가에 집결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모든 진을 데리고 나왔는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었다. 말과 전차도 매우 많았다(수11:4)"의 말씀처럼 가나안 북쪽 지역의 연합군들은 해변의 수다한 모래같이 엄청난 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론 호숫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론 호숫가의 전투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판 승부처가 되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입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가나안 쪽이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기가 꺾여 더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엄두를 낼 수 없을 것이며,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 가나안 북쪽 지역 즉 갈릴리 북쪽까지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참으로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눈앞에서 시체들로 주리니 그들의 말들 뒷발 힘줄을 너는 끊어야 하고 그들의 전차들을 불에 살라야 한다(수11:6)"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숫자상으로 절대 불리한 전투였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을 맞아 싸우게 하여 마침내 승리를 역어내게 했던 것입니다(수 11:7~11).

여호수아가 지휘하던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하솔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솔 왕은 칼날로 쳐 죽이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는데 진멸이란 말은 '바치다, 구별하다'란 뜻으로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분리된 것, 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기로 바쳐진 것이란 의미가 있으므로 그 대상인 하솔은 철저한 죽임을 면치 못했고 하솔은 불로 태워졌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셔서 하솔성에 답사하시면 성곽이 불태워져 변하여 버린 자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솔 동맹군을 격파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 때에 이뤄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솔 성터입니다. 그 후 하솔은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으며(수 19:36), 다시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 되찾아졌습니다(삿 4:1~24).

왕국 시대 솔로몬은 이곳에 성을 쌓고 병거대를 배치하였고(왕상 9:15) 이곳에서 솔로몬의 마병대가 훈련을 하고 유사시에 출동하여 근처에 있는 가나안을 제압하고 북방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 이 병거성은 파괴되고 이곳 주민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왕하 15:29).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베냐민 자손 중 일부가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솔은 고대 시대부터 중요한 무역로에 있었으며 군대 이동 경로이기도 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군대와 강력한 이집트 군대의 충돌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솔은 이스라엘 고고학자 야딘에 의하여 구체적인 발굴이 이루어져 도시 역사가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해발 225~230m에 있는 하솔은 야빈이 통치할 때 주민이 2만 명에 이르렀고 전체 크기는 80헥타르나 된다고 합니다. 하솔의 유적지에서 최근 발굴을 통하여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솔의 최근 발굴에 의하여 이 성은 솔로몬의 병거성을 거쳐 아합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주전 732년 아수르의 점령을 받고 주전 7세기에서 주후 2세기까지 상부 도시가 건설되는데, 주전 147년 하스모니아 왕조 때 도시가 재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순례하면서 브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 세겜, 므깃도, 하솔을 가능한 한 꼭 방문하는 것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순례를 자주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은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또는 아주 큰 여행사라는 이유로 성지를 알지 못하는 곳을 통하여 성지순례를 가시는 것은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용규 목사 / 크리스찬 해피투어 선교 목사·성지 플래너